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관한 인식유형

두현정¹ · 이윤정²

¹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²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Parental Role among College Students

Doo, Hyun Jung¹ · Lee, Yun Jeong²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University, Jinju;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kottongnae University, Chungju,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on the role of parents an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assified type. **Methods:** The Q methodology was used for this study interviewing 150 college student, 70 statements were derived as a result from interviews conducted among college students. Thirty seven final Q-statements were derived by categorizing the statements based on significant similarities. The Q-statements were sorted by 37 college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PC QUANL. **Results:** The analyzed types resulted in 4 categories: "friend-like parents type," "stability-oriented parents type," "discipline and guidance parents type", and "personality nurturing parents type."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for establishing a proper role and values of parenting. It can also contribute to designing an important educational material for parental education.

Key Words: College students, Parental role, Perception, Q-methodolog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결혼을 통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인간다움을 습득할 수 있는 1차적 생활 장소이자 한 인간의 기초적인 과정을 익히고 발전시켜가는 곳이며 이러한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모는 가장 중심점이 되어 자녀에게 모델이 된다[1]. 그러나 최근 만혼 현상, 직업과 생활양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결혼과 자녀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자녀 수의 감소는 부모의 역할 수행의 양은 줄여주었으나 오히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녀출산으로 인해 부모가 되면서 심각하고 힘든 역할전이를 경험하게 된다[2]. 즉, 출산과 더불어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부부간의 친밀함이 감소하며 부모 개인의 생활과 사회적

인 관계망이 축소되는 등 부모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이나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게 된다[3]. 더욱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아동학대나 유기, 청소년 비행 등은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다[2]. Holden과 Ritchie [4]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부모역할을 크게 양육역할, 관리역할, 발달자극역할로 요약하여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이나 신념을 부모가 되기 이전에 확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학생들이 속해 있는 초기 성인기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인간 발달 단계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친밀감을 구축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무의식적 수준에서 형성되던 자아개념이 의식적인 노력으로도 형성되며 아동기까지의 모든 발달 과제들이 재통합되어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상을 정립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예비 부모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라고 하였다[5]. 부모가 되기

주요어: 대학생, 부모역할, 인식, 주관성연구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Yun Jeong

Department of Nursing, Kkottongnae University, 133 Snagsam-gil, Hyeundo-myeon, Seowon-gu, Cheongju 28211, Korea
Tel: +82-43-270-0170 Fax: +82-43-270-0614 E-mail: leeyj@kkot.ac.kr

Received: 12 October 2015 Revised: 24 February 2016 Accepted: 24 February 2016

이전에 부모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바람직한 자녀 양육관과 양육태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만연한 가족과 관련된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6].

현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일환인 2011-2015년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자녀돌봄 지원강화와 부모역할 지원에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부모교육활성화의 일환으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활성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 기피현상에 대한 예방과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책에서도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부모교육의 활성화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특히 교육 개발의 '근거(evidence)'가 정책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7],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 시대의 대학생들이 부모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는 최근 저출산 현상 개선을 위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부모교육의 방향과 시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부모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탐구를 위하여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Q 방법론은 스티븐슨에 의해서 창안된 방법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 신념, 가치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8].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자신이 이해하는 틀(frame)로 세상을 바라보며, 경험을 구조화하며,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각 개인은 이러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기에 수없이 많은 사물과 사건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와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방식이 개인마다 다르지만,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이나 평가를 형성하게 된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에 대해 대학생들의 개개인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주관적 태도와 경험을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틀을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개념을 성역할, 통제 훈육, 성장자극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고[10,11], 대학생들의 부모역할 인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역할로서 양육환경 조성, 부모의 민감성, 신체 돌보기, 성장발달로 파악하였다[12]. 또한 부모가 인식하는 부모역할에 관한 이전 연구에서 부모역할을 어머니로서의 유능감, 양육

만족감, 부모역할에 대한 투자, 부모역할과 다른 역할 간의 균형감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고[13,14], 결혼이민자의 부모역할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을 발달자극 역할과 양육역할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으며[1],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새로운 부모역할을 제안하는 연구에서는 부모역할을 크게 2영역으로 구분하여 양육책임감의 영역에서 자원제공자, 양육자의 역할과 양육참여의 영역에서 발달적 지지자, 돌보기 및 지도자, 함께하는 활동자의 역할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15]. 위와 같이 부모역할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의 동향은 주로 현대의 저출산과 결혼기피현상에 대한 진단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상황, 결혼 희망연령, 출산의사 유무와 같은 사회, 경제적 관점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거나 부모역할에 따른 자녀의 심리, 정서적 영향, 학업성취와 같은 초중고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루어졌다. 또한 부모역할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존 선행연구의 문헌을 통해 구성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의 역할은 전통적인 역할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현대사회의 부모역할은 이전과는 다른 상실과 갈등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하고 있다[16]. 그러므로 이전에 사용된 부모됨에 대한 도구를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시대적 상황에 따른 부모역할의 변화가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발달의 주요한 문제는 부모의 양육활동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할 때 부모가 되기 직전의 초기 성인인 대학생들의 부모됨에 대하여 인식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 할 수 있다. 또한 간호학적 측면에서 볼 때, 간호사는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관련 전문가들 중 부모는 물론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고, 인간 발달과정과 아동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 부모역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라 할 수 있다[17]. 그러므로 간호학적 관점에서 대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모역할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하고 이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이를 반영한 부모역할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올바른 부모역할과 부모관을 정립하도록 돕고, 추후 다른 학문 분야와는 차별화된 아동양육과 관련된 지식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관한 인식유형을 분석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전략개발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한다.
- 2)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관한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연구방법

1. 표집 방법

1) Q모집단 및 Q표본의 선정(Q-Sample)

Q모집단의 구성을 위해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관한 인식에 관련된 내용을 선행연구[16,18]에서 추출하고, 이와 함께 J시와 C시에 있는 4년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하여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문헌과 선행 연구, 서적을 통하여 추출된 자료들로 진술문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240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다음 단계는 연구자들이 속해 있는 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가운데 본 면담에 대하여 면담에 참여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 등을 고려해서 심층 면담하였다. 1인당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60-90분이었고 면담 시 질문내용은 “부모역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였다.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얻고 면담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으며 대상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필사하여 기록한 원 자료에서 대학생이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과 관련된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총 70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여 Q-모집단을 선정하였다. 수집한 Q-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가면서 부모역할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생각이 같은 진술문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환경, 정서, 교육 및 관계의 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각 범주에 속한 진술문은 최소 8개부터 최대 14개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 진술문 중에서 상이하며 가장 변별력이 높은 진술문 37개를 Q표본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항목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대학생 3명을 대상으로 pilot test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을 통해 모호한 표현 또는 단어 선택, 문맥의 상충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타당도 검증은 부모역할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고찰과과 간호학 교수 3인의 간호학과 교수에 의해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37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2) P표본의 선정(P-Sample)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s)가 아니라 개인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 individual differences in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P-표본의 수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수가

커지면 통계학적으로 문제를 갖게 된다[19]. 이러한 근거로 인가사 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P-표본은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대학생 39명을 편의표집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2명이 불성실하게 답변한 자료를 제외시켜서 총 3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3) Q 분류(Q-sorting)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P-표본에게 37개의 Q-진술문을 읽게 한 후 우선 긍정적으로 느끼는 진술문은 오른쪽에, 반대하는 진술문은 왼쪽에, 중립적인 진술문은 가운데로 분류하게 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는 진술문 중에서 가장 부정하는 것은 -4 (1)에 두고 차츰 안쪽으로 분류해 나가도록 하고 긍정하는 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4 (9)에 놓게 함으로써 중립 부분을 마무리 하도록 하였다. 양극에 놓인 진술문(-4, +4)에 대해서 그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선택이유를 직접 작성하거나 후속 면담을 하였다.

2. 자료의 분석

자료 분석은 37명의 수집된 자료를 가장 부정하는 문항을 1점으로 시작하여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가장 긍정하는 문항을 9점으로 점수화하여 코딩한 후 pc-QUANL ([http:// www.ks.sss.org/pds_kssss.php](http://www.ks.sss.org/pds_kssss.php))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윤리적 고려

J시와 C시의 대학의 3, 4학년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진행절차를 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구에 대한 참여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 질문지와 면담기록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연구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환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연구결과

1. Q-유형의 형성

본 연구에서는 pc-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학생의 부모 역할에 관한 인식에 대한 주관성을 분석한 결과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은 55.3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설명력을 보면 제1요인이 34.54%, 제2요인이 8.534%, 제3요인이 6.98%, 제4요인이 5.26개로 나타났으며(Table 2). 이들 각 유형의 상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 for P-sample

Type	Var No.	Sex	Age	Family type	Birth order	Marital intimacy of parent	Parent child Intimacy	Family climate	Factor weights
Type I (N = 13)	3	F	20	Nuclear	1st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22
	4	M	23	Nuclear	2nd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1.71
	9	F	22	Extended	1st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1.90
	11	F	23	Nuclear	1st	Very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0.52
	14	F	21	Nuclear	2nd	Very Intimate	Veryintimate	Authoritative	0.48
	18	F	24	Nuclear	1st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0.61
	21	M	22	Nuclear	1st	Ordinary	Intimate	Authoritative	0.21
	22	F	20	Nuclear	1st	Ordinary	Intimate	Democratic	0.41
	26	F	20	Extended	2nd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0.31
	27	F	20	Nuclear	2nd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0.49
	28	M	23	Nuclear	2nd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0.61
	30	F	20	Nuclear	2nd	Very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1.61
	33	M	24	Nuclear	1st	Ordinary	Intimate	Authoritative	0.67
Type II (N = 10)	5	F	25	Nuclear	1st	Very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1.14
	7	F	21	Nuclear	2nd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0.66
	10	F	25	Nuclear	2nd	Very Not Intimate	Very Intimate	Authoritative	0.40
	16	F	23	Nuclear	1st	Very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42
	17	F	21	Nuclear	1st	Very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55
	19	F	21	Nuclear	2nd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1.67
	20	F	24	Nuclear	2nd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64
	31	F	23	Nuclear	3rd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60
	32	F	21	Nuclear	1st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2.08
	34	F	25	Nuclear	3rd	Ordinary	Intimate	Democratic	0.22
Type III (N = 4)	6	F	25	Nuclear	2nd	Very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2.66
	12	F	23	Nuclear	2nd	Very Not Intimate	Very Intimate	Authoritative	0.30
	36	M	25	Extended	2nd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2.66
	37	F	22	Nuclear	2nd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2.66
Type IV (N = 10)	1	M	25	Extended	2nd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1.20
	2	F	22	Nuclear	2nd	Ordinary	Ordinary	Authoritative	0.58
	8	F	25	Extended	2nd	Ordinary	Intimate	Democratic	0.30
	13	F	20	Extended	1st	Intimate	Ordinary	Democratic	0.25
	15	F	22	Nuclear	2nd	Ordinary	Very Intimate	Democratic	0.62
	23	F	20	Nuclear	1st	Ordinary	Ordinary	Democratic	0.45
	24	M	23	One parent	2nd	Ordinary	Very Intimate	Democratic	0.54
	25	F	20	Nuclear	1st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47
	29	F	20	Nuclear	2nd	Intimate	Intimate	Democratic	0.29
	35	F	21	Nuclear	3rd	Intimate	Very Intimate	Democratic	1.19

Table 2. Eigen Value,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Eigen value	12.7794	3.1562	2.5814	1.9478
Variance (%)	34.54	8.53	6.98	5.26
Cumulative Variance (%)	0.3454	0.4307	0.5005	0.5531

Table 3. Correlation Matrix between Types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Type II	0.450	1.000	0.184	0.383
Type III	0.148	0.184	1.000	0.162
Type IV	0.510	0.383	0.162	1.000

관계는 Table 3와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 37명은 제1유형은 13명, 제2유형은 10명, 제3유형은 4명, 제4유형은 10명으로 분류되었다(Table 1). 인자가중치가 1.000 이상인 사람이 제1유형에 2명, 제2유형에 3명, 제3유형에 3명, 제4유형에 2명이 속해 있었다.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은 유형을 분류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속한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는 대상자이다.

2. 유형별 분석

제1유형: 친구 같은 부모형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7명 중 13명으로, 평균 나이 24세였으며, 부모의 부부사이가 대체로 친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대체로 친밀한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가정 분위기는 민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제1유형이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올바른 인격 성품을

Table 4. Q-statements and Z-scores

Q - Statement	Z-score			
	Type I (n = 13)	Type II (n = 10)	Type III (n = 4)	Type IV (n = 10)
Q1. The child's parents to provide a basic food, clothing and shelter.	1.83	1.57	1.80	-0.70
Q2. The composition of a warm atmosphere.	1.10	1.73	0.00	1.00
Q3. Parent must have a stable income.	0.93	1.08	-1.34	-0.80
Q4. Parents always talk about kids and kids around issues.	0.74	1.77	-0.50	0.54
Q5. Should be made non-violent home environment.	1.32	1.61	-0.42	0.14
Q6. Must be nurtured so that their children can have the good personality.	1.73	1.59	0.91	1.26
Q7. Develops independence without parent's helping.	0.32	0.64	0.91	0.32
Q8. Helps identify the limits of freedom and responsibility for child's behavior.	-0.45	0.64	0.92	-0.32
Q9. The wait to give children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many things.	0.32	0.91	0.00	-0.44
Q10. The right to enter into the wrong way to hold your child.	0.54	0.70	1.77	0.80
Q11. Take care of the child when the child is sick.	0.61	0.92	-0.40	0.24
Q12. Helps to have the confidence that you can do anything themselves.	0.21	0.82	1.27	0.51
Q13. parent should be shelter there child.	-2.36	-0.91	0.44	-2.41
Q14. Praise the child's behavior and admits to have selfesteem.	0.11	0.61	1.75	1.96
Q15. Being a Gender role model.	-0.40	0.00	-1.74	-0.60
Q16. Sacrifice themselves for their children.	-2.25	-0.94	-1.41	-2.40
Q17. The proper control of child Indulgences behavior.	-1.06	-0.4	-0.5	-1.01
Q18. Should be planted in a dream about the future.	-0.30	0.53	-1.40	0.40
Q19. The understanding of the child's thinking and behavior.	-0.60	-0.22	-0.91	0.43
Q20. Should be encouraged and supported to be tough.	0.32	-0.14	1.35	0.00
Q21. Spend more time with their children.	0.21	-0.03	-1.74	1.01
Q22. This consensus should be formed through the exchange of emotional feelings.	-0.11	0.14	-1.70	0.82
Q23. Even though they are poor, parent teach to have positive thinking.	-1.31	0.22	1.37	1.09
Q24. Lots of love to give to the children so they think they might be able to love someone.	-0.52	0.21	-0.54	1.99
Q25. The children always believed in any situation.	-1.16	-0.5	0.00	-0.60
Q26. When your child is distressed, give the opponent a conversation.	1.11	-0.6	0.52	-0.11
Q27. Taking into account the child's abilities and interests, and help to select and prepare the school, vocation.	0.00	-0.92	0.40	0.01
Q28. Parents should be the model as a member of society.	-0.91	-1.30	0.00	-0.61
Q29. Parents should be close to comfort child and should be like a friend to tell a worry.	0.42	-1.05	0.06	0.72
Q30. Not bound to the child and Achieves better the lives of their parents.	0.46	-1.12	-0.92	0.31
Q31. Respect the child and should be treated as personal.	1.53	-1.00	0.53	0.94
Q32. Parent needs to be exemplary in moral and law-abiding parents.	1.02	-1.05	-0.9	0.00
Q33. Should help to have the right perspective and interest in social issues.	-0.83	-1.45	-0.14	-0.39
Q34. Instruct child's learning.	-1.01	-1.72	0.80	-1.71
Q35. Should help to be able to discover and to develop the talents of the children.	0.61	-1.13	-0.00	0.27
Q36. To the child's growth economic support is needed.	-0.24	-1.44	-0.94	-1.25
Q37. Learn their own unique family traditions.	-1.64	0.31	0.40	-1.08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Q6/Z=1.73)'였고, '자녀의 존재와 의견에 대해 인격적으로 자녀를 존중해주어야 한다(Q31/Z=1.53)', '고민거리가 있을 때 친구같이 대화상대가 되어 준다(Q26/Z=1.10)', '안정감을 주는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한다(Q2/Z=1.10)'순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자녀의 허물을 덮어준다(Q13/Z=-2.26)',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Q16/Z=-2.25)', '집안의 가풍 또는 가훈을 잘 지키고 유지하도록 한다(Q37/Z=-1.64)',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는 긍정적이어야 한다(Q23/Z=-1.31)'순이었다(Table 4). 또한 제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즉 타 유형과 비교하여 표준 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자녀의 존재와 의견에 대해

인격적으로 자녀를 존중해주어야 한다(Q3/Z=1.52)', '고민거리가 있을 때 친구같이 대화상대가 되어 준다(Q26/Z=1.11)', '올바른 인격 성품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Q6/Z=1.73)'순이며, 타 유형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집안의 가풍 또는 가훈을 정하여 잘 지키고 유지하도록 한다(Q37/Z=-1.64)', '자녀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믿어준다(Q25/Z=-1.16)', '통금시간이나 TV 시청 등 자녀행동에 대한 적당한 통제를 해준다(Q17/Z=-1.06)',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는 긍정적이어야 한다(Q23/Z=-1.31)'순이었다.

제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897을 나타낸 연구 대상자 9명은 가족형태가 대가족이며 출생순위는 첫째 부모님의 부부관

계는 보통,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보통이라고 말한 22세 9번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가깝고 편안해서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Q3)'였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함으로써 친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가족에게 기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또 인자 가중치 1.613인 30번 연구 대상자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친구같이 대화상대가 되어 준다(Q26)', '폭력적이지 않은 가정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였다. 그 이유로 "마음속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부모여서, 가정이 폭력적이면 부모를 가깝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였고 항목 선택의 이유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다.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부분까지 돌봐주고 자신의 전부를 바칠 필요는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친구 같은 부모형'으로 명명하였다.

제2유형: 안정감 구축형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7명 중 10명으로 평균 나이 24세, 부모의 부부사이는 친밀한 편이며 본인과 부모와의 사이도 친밀한 편이고, 가정 분위기는 대체로 민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부부 관계가 화목하여 부모가 자녀문제를 함께 의논한다(Q4/Z=1.77)'에 가장 동의하였고, 다음으로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안정감을 주는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한다(Q2/Z=1.73)', '폭력적이지 않은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Q5/Z=1.61)', '올바른 인격 성품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Q6/Z=1.59)', '부모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자녀에게 마련해준다(Q1/Z=1.57)', '부모는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다(Q3/Z=1.08)'순이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자녀의 학습을 지도한다(Q34/Z=-1.72)'이며 그 뒤로는 '시사문제 또는 사회적 현안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한다(Q33/Z=-1.45)', '자녀가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한다(Q36/Z=-1.44)', '사회생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 모델이 되어주어야 한다(Q28/Z=-1.30)',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Q35/Z=-1.15)', '자녀에게 엄매이지 않고 부모 자신들의 인생도 잘 이루어 나간다(Q30/Z=-1.12)', '도덕과 준법생활에 본보기가 된다(Q32/Z=-1.05)', '가깝고 편안해서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Q29/Z=-1.05)'순이었다.

제2유형은 타 유형에 비해 '부부 관계가 화목하여 부모가 자녀문제를 함께 의논한다(Q4/Z=1.77)'를 가장 강하게 동의하였고 '안정

감을 주는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한다(Q2/Z=1.73)', '폭력적이지 않은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Q3/Z=1.61)', '부모는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다(Q3/Z=1.08)'순이었다. 타 유형에 비해 가장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자녀의 학습을 지도한다(Q34/Z=-1.72)', '자녀가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한다(Q36/Z=-1.44)', '사회생활을 하는 한 사람으로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한다(Q28/Z=-1.30)', '시사문제 또는 사회적 현안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한다(Q33/Z=-1.46)',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한다(Q35/Z=-1.15)', '자녀에게 엄매이지 않고 부모 자신들의 인생도 잘 이루어 나간다(Q30/Z=-1.12)', '도덕과 준법생활에 본보기가 된다(Q32/Z=-1.05)', '가깝고 편안해서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Q29/Z=-1.05)'순이었다.

제2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2.079를 나타낸 연구 대상자 32번은 21세 여학생으로, 가족형태는 핵가족이며, 출생순위는 첫째, 부모님의 부부사이는 친밀하며, 본인과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정 분위기는 민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32번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안정감을 주는 따뜻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한다(Q2)',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부모가 자녀문제를 함께 의논한다(Q4)', '부모는 폭력적이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Q5)', '부모는 경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다(Q3)'였으며 이러한 항목을 선택한 이유는 "가정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 가정의 안정은 정서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 인자 가중치 1.6742인 19번 연구 대상자는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부모가 자녀문제를 함께 의논한다(Q4)', '부부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자녀에게 마련해 준다', '폭력적이지 않은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Q5)'에 강하게 동의하며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하여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가족의 구조적 안정으로 가족의 내구성이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자녀의 존재와 의견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주어야 한다(Q31)', '가깝고 편안해서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Q29)'였고 항목 선택의 이유는 "너무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가정의 질서와 예절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너무 친구처럼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부모는 안정적인 가정을 구축하는 역할에 책임이 있는 존재로서 부부의 결속이 단단하여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인 안정도 가족의 안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대상자들로 판단되므로 '안정감 구축형'으로 명명하였다.

제3유형: 훈육지도형

제3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7명 중 10명으로 평균 24.7세 부모의 부부관계 친밀 정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 정도 모두 친밀한 편이었고, 가정 분위기는 대체로 민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제 3유형의 표준점수와 나머지 유형의 평균 표준점수와의 차이가 나타난 진술항목은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제3유형 중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부모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자녀에게 마련해준다(Q1/Z = 1.80)',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바로잡아준다(Q10/Z = 1.77)', '자녀의 행동을 칭찬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준다(Q14/Z = 1.75)',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는 긍정적이어야 한다(Q23/Z = 1.37)', '힘든 일이 있을 때 격려와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Q20/Z = 1.35)', '무엇이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Q12/Z = 1.27) 순이었다. 반면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부모는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다(Q3/Z = -1.34)', '장래에 대해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Q18/Z = -1.35)',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Q16/Z = -1.37)', '감정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Q22/Z = -1.71)',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Q21/Z = -1.74)',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 남성상의 모델이 되어준다(Q15/Z = -1.74) 순이었다. 제3유형이 타 유형에 비해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부모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자녀에게 마련해준다(Q1/Z = 1.80)',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바로잡아준다(Q10/Z = 1.77)',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는 긍정적이어야 한다(Q23/Z = 1.37)', '힘든 일이 있을 때 격려와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Q20/Z = 1.35)', '무엇이든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Q12/Z = 1.27) 순이며,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자녀에게 적절한 여성 남성상의 모델이 되어준다(Q15/Z = -1.74)',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Q21/Z = -1.74)', '장래에 대해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Q18/Z = -1.35)', '부모는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다(Q3/Z = -1.34)', '감정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Q22/Z = -1.71) 순이다. 제3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2.6512를 나타낸 연구 대상자 6명은 가족형태가 핵가족이며 출생순위 둘째, 부모님의 부부관계는 매우 친밀,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고 하고 가정 분위기는 권위적이라고 응답한 21세 여학생이었다.

위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바로잡아준다(Q10)'이며 이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는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며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인자 가중치 2.5612인 36번 대상자는 '올바른 인격성품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Q6)', '행동에 자유와 책임의 한계를 구별해준다(Q8)'에 강하게 동의하며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자녀의 존재와 의견에 대해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주어야 한다(Q31)', '가깝고 편안해서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Q29)'였고 항목 선택의 이유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가정의 질서와 예절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너무 친구처럼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자녀가 바른 인격체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는 편안한 친구이기 보다는 자녀의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교육을 하고 훈육을 통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도하기도 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진 대상자들로 판단되므로 '훈육 지도형'으로 명명하였다.

제4유형: 인성 양육형

제4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7명 중 10명으로 평균 나이 21.8세, 부모의 부부관계 친밀 정도는 친밀한 편이며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도 친밀한 편이었고 가정 분위기는 대체로 민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제4유형 중 강하게 동의한 진술문은 '사랑을 많이 주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Q24/Z = 1.99)', '자녀의 행동을 칭찬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준다(Q14/Z = 1.96)', '올바른 인격 성품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Q6/Z = 1.26)',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는 긍정적이어야 한다(Q23/Z = 1.09) 순이었다. 반면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진술문은 '자녀의 허물을 덮어준다(Q13/Z = -2.41)',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Q16/Z = -2.37)', '자녀의 학습을 지도한다(Q34/Z = -1.71)', '자녀가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도록 경제인 뒷바라지를 한다(Q36/Z = -1.25)', '집안의 가풍 또는 가훈을 정하여 잘 지키고 유지하도록 한다(Q37/Z = -1.08)', '통금시간이나 TV 시청 등 자녀행동에 대한 적당한 통제를 해준다(Q17/Z = -1.01) 순이었다. 제4유형은 타 유형에 비해 동의하는 항목은 '사랑을 많이 주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Q24/Z = 1.99)', '자녀의 행동을 칭찬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준다(Q14/Z = 1.96) 순이고, 타 유형에 비해 동의하지 않은 항목은 '자녀의 허물을 덮어준다(Q13/Z = -2.41)',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Q16/Z = -2.37) 순이다. 제4유형에 속한 대학생들 가운데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212를 나타낸 연구대상자는 1번으로서 여학생이며,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 출생순위는 둘째, 부모님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라고 응답하였고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정의 분위기는 '권위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위 대상자가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은 '자녀의 행동을 칭찬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해준다(Q14)'이며 이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양육되어야 타인과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인

자 가치(1.1856)인 35번 대상자는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는 긍정적이어야 한다(Q23)에 강하게 동의하며 “가족의 경제적인 여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정도와 행복한 가정은 비례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부모의 역할이라고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강한 부정적 동의를 한 항목은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Q16)’. ‘부모는 경제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다(Q3)’였고 항목 선택의 이유는 “우리 집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고 자랑스러웠고 부족한 살림이 부끄러운 적은 없었다. 경제활동을 통한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 것은 부모의 필요조건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제4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부모는 자녀가 존중받고 한다고 생각하며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면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태도를 지닌 제4유형 대상자들은 ‘인성 양육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간의 공통적인 견해

부모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은 네 가지로 나뉘어져 각 유형마다 각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네 가지 유형의 특성 중에서 공통적으로 부모의 역할은 ‘가깝고 편안해서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Q3/Z=1.42)’,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Q6/Z=1.36)’에 강한 동의를 보였다. 즉 부모역할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유형에 대한 공통적 견해는 부모는 자녀와 정서적 친밀함을 바탕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녀의 심리 정서적인 영역을 양육하는 것을 부모의 주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연구 대상자의 주관성에서 출발하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였다. 대학생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유형은 ‘친구 같은 부모형’, ‘안정감 구축형’, ‘훈육 지도형’, ‘인성양육형’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짐을 발견하였다. 이 네 가지 유형은 부모 됨에 대한 선행연구에서[16] 나타난 ‘자녀의 대화 상대’, ‘가족들의 의식주에 불편이 없도록 적당한 수입 갖추기’, ‘자녀의 사회적 인지발달을 도와주기’ 등의 역할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1유형은 부모는 자녀가 고민과 걱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대상이어야 하며, 정서적으로 친

밀한 친구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전통적인 부모의 근엄한 태도가 아닌 친구 같은 부모의 역할을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애착이 부모역할 인식에 가장 높은 영향력임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가 발간한 ‘2015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빠들이 아이와 교감하는 시간은 하루 6분으로 OECD 평균 47분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결과와 우리나라 청소년은 부모와 의사소통 및 유대감이 가장 낮으며, 중고생의 46.3%가 자신의 고민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결과[14,20]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상당수 그들의 부모와 정서적 친밀감의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 자녀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역할기대)과 실제 수행되고 있는 부모의 역할(역할수행)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21].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므로 부모역할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의 각 발달 단계에 필요한 적절한 양육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나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교육 요구조사 관련 논문을 분석한 연구에서 [22] 부모교육 대상자들의 요구 중 교육담당자에 대한 요구도에 있어 57.3%로 가장 많은 수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한 결과나, 간호사가 전문가 집단 가운데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및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접근하기가 가장 용이한 위치에 있고, 인간의 발달과정과 신체 심리사회적 건강 문제에 대한 충분한 실무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역할을 개발시키고, 양육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전문직[23]의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면 부모역할의 진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간호학적 진단 및 부모교육 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제1유형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자신의 삶의 전부를 자녀에게 바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대상자의 심층 면담내용을 분석해보면 ‘부모의 희생적인 전통적인 역할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녀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낳아 길러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을 위해 정서적인 존재로서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13,18], 현대의 부모는 전통적인 부모역할과는 달리 부모역할 이외의 성인기의 과업과 균형이 강화된 형태를 바람직한 부모형태로 제시하고 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유형은 ‘안정감 구축형’으로서, 부모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

경과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 물리적인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대학생이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선행 연구에서[12] 부모 역할의 하부영역 중 양육 관련 환경에 관한 문항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결과와 일치한다. 부모역할이 '가정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고 인식하는 제2유형들은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낮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상황을 부모 역할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고, 이것은 가족형성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24]. 그러므로 가족의 안정성 구축을 위하여 가족 형성과 출산 및 양육에 있어 가정의 경제적 자원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인 요인 이외에도 가정을 유지하고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유형은 '훈육 지도형'으로서 자녀의 양육에 있어 부모의 훈육과 지도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유형이다. 이 결과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유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행위에 관한 내용분석을 한 선행연구에서[25] 나타난 '올바른 훈육'에 대한 범주와 유사하며, 대학생의 부모역할 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11]에서는 부모의 역할의 영역을 통제·훈육, 성장자극의 3영역으로 구분한 것과도 일치하여 부모역할에 있어 훈육의 역할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자녀가 적절한 보호와 감독을 받지 못하면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므로 이에 대해 보호 및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행동문제 및 일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과[26] 부모의 관리 및 감독의 부재가 청소년의 유해환경접촉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을[27] 지지한다.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내재시키고[28] 유해환경에 대한 자발적인 통제력이 낮아지게 한다[29]. 즉 부모의 훈육 지도가 부모의 역할 중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한편 이와는 반대의 연구결과도 있는데 안전한 지역사회의 경우 부모의 감독 및 통제가 낮은 아동들이 비행수준이 더 낮았다[30]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것은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자원이 낮은 지역일수록 부모감독의 보호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부모의 훈육지도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4유형은 '인성 양육형'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감정이해 및 존중하는 역할을 하며 자녀의 인성 교육에 큰 비중을 두는 유형이었다.

가정 내에서 부모를 통한 자녀의 인성교육의 주요 요소들은 타인배려, 소통, 책임, 자기주도 등으로서 가정 내 인성교육의 목표는 사회성, 개성, 도덕성이 균형 있게 전인적으로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다[31]. 자녀의 인성교육에 대하여 부모들은 어떤 기준과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닌 부모역할 인식에 관한 주관적 구조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부모역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부모교육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친구같은 부모형', '안정감 구축형', '훈육 지도형', '인성 양육형'의 4개의 유형이 추출되었다. 4개 요인은 전체 변량은 55.3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설명력은 제1요인이 34.54%, 제2요인이 8.534%, 제3요인이 6.98%, 제4요인이 5.26%로 나타났다. 부모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은 네 가지로 나뉘어져 각 유형마다 각각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네 가지 유형의 특성 중에서 공통적으로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갖도록 양육해야 한다(Q6/Z=1.36)'에 강한 동의를 보여 자녀의 인격과 성품이 올바르게 갖추어지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들 스스로 부모역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주관적 인식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진술문을 활용하여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발견된 유형을 기초로 개인의 주관성이 고려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교육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가 인식한 부모역할 유형과 부모가 인식한 부모역할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고, 서로에 대한 차이를 좁히는 데 기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둘째,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를 토대로 부모역할의 수행을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

1. Park DS. Research on parents' perception of their roles in Marriage immigrant families [master's thesis], Incheon: Incheon University; 2009.
2. Lee SJ. The family strengths and perceptions of future parents roles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09;18(2):301-

311. doi:org/10.5934/KJHE.2009.18.2.301
3. Koh SJ, Ok SW. Research: Transition to Parenthood I: Couple's Dyadic Adjustment during the First Child Pregnan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993;31(2):55-67.
 4. Holden GW, Ritchie KI. Child rearing and the dialectics of parental intelligence. In J. Valsiner (Ed): *Parental Cognition and Adult-child Interaction*. 30-59, New Jersey: Ablex 1998.
 5. Kim JM. Pre-parent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5;43(3):233-249.
 6. Lee SK, Park HS. A comparative study of perception of parenthood and the needs for a pre-parental educational program for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0;19(4):625-639. doi:org/10.5934/KJHE.2010.19.4.625
 7. Park SH. In the perspective of EBP, limit of low fertility and aging policy. *Journal of government and policy*. 2008;1(1):55-82.
 8. Stephenson W. *Study of Behavior: Q 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9. Moscovici S. *Social representations: exploration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1.
 10. Ma JS, Park JH, Moon CB.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par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09;3321-3330. doi:org/10.5762/KAIS.2011.12.1.200
 11. Lee EJ, Kang YS, Park JH. A study on pre parents' perception of parental role and view of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23(4):1566-1573.
 12. Kwon MK. Perception of parental role by university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04;10(4):413-422.
 13. Bornstein MH, Cote LR. Cultural and parenting cognitions in acculturating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03;34(3):350-373. doi:org/10.1177/0022022103034003006.
 14. Lee K. H.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and life satisfac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2.
 15. Rha JH. A suggestion for new parental roles according to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s: The changing parental roles and practic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05;14(3):411-421.
 16. Jeong ES. The recognition of becoming parent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Kyung Hee University; 2002.
 17. Lee DS, Kwon IS. An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on child rearing in Korea.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4; 20(4):264-274.
 18. Lee S. E.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according to parenting cognition. Th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2.
 19. Kim KH.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on child development.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009;24(2):27-45.
 20.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Youth Key Competency Surve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21. Kim BG, Song S. A study on the degree performance and expectation of their father's paternal role recognized by the adolesc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004;7(2),17-33.
 22. Kim JH. The analysis of theses content related to parents' needs for their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5):2115-2123. http://dx.doi.org/10.5762/KAIS.2011.12.5.2115
 23. Han KJ. Child-rearing & nursing role.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2000;3(1):95-101.
 24. Yoo SH. On regional fertility differentials: understanding the causal mechanisms of low fertility i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ety*. 2006; 2(2):53-76.
 25. Park SJ. Content analysis of child rearings of mothers in infant and child preschool.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4;20(1):39-48. doi:org/10.4094/chnr.2014.20.1.39.
 26. Cynthia CT.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Boston: Allyn and Bacon. 2002 ISBN 0-205-40183-X.
 27. Agnew R.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001;38(4):319-361. doi:org/10.1177/0022427801038004001.
 28. Ostrowsky MK, Steve FM. Explaining crime for a young adult population: An applic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005; 33(5):463-476. doi:org/10.1016/j.jcrimjus.2005.06.004
 29. Crittenden PM. Attachment and psycho pathology. In S. Goldberg R. Muir & J. er(Eds.): *Attachment theory: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Hillsdale, NJ: The Analytic Press. 1995
 30. Coley RL, Hoffman LW. Relations of parental supervision and monitoring to children's functioning in various contexts: moderating effects of families and neighborhood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996; 17(1):51-68.
 31. Chin MJ, Lee HA, Seo HS. Parents' Perceptions on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in Famil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14;32(3):85-97. doi:org/10.7466/JKHMA.2014.32.3.85.